

**01 ▶ 식약처장,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 점검**

9월 8일 식약처장이 부산지방청을 방문해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수입수산물 검사현장을 둘러봤다. 업무보고 이후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최일선 현장인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신고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식약처의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부산식약처가 부산 및 울산·경남지역의 식·의약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02 ▶ 녹십자 공장에서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정승 처장은 8월 23일 광주지방식약처과 녹십자 백신 공장을 방문했다. 녹십자 전남 화순 공장은 독감백신은 물론 각종 기초 백신을 활발히 생산하며 명실상부한 '백신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승 처장은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신 산업

은 국민건강을 굳건히 지키는 보루로 녹십자는 세계 8번째로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백신 수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등 단순한 비용적 가치를 넘어 중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어 앞으로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03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강국을 위한 간담회**

식약처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발전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업체 CEO와 함께 8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오의약품협회장을 비롯하여 CJ 제일제당, SK케미칼, 메디포스트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로슈, 사노피파스퇴르 등 외국계 업체까지 20여 개사 CEO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식약처의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제품화 지원 정책 발표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바이오의약품 업체 CEO의 건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04 ▶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단체 대상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수산물 원산지 관리, 원양 및 연근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 부두 인근의 냉동 수입수산물 보관창고 및 활어보관장을 방문하여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05 ▶ 식약처장, 명절 맞이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일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에 따른 국내 전통시장의 위축을 막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주기 위

해 마련됐다. 또 정승 처장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위치한 양로시설 '효부 마을복지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 등 나눔행사를 했다.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자리였다.

**06 ▶ '바이오 코리아 2013' 개최**

바이오산업 국제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13'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컨퍼런스 및 전시회, 비즈니스 포럼, 팜페어, 인베스트 페어, 잡페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융합 바이오, 컨설팅, 벤처캐피탈, 대학 및 연구소, 병원, 로펌, 정부기관, CMO, CRO, Bio Product, Bio Process, Business Services, Clinical Trial, Bio IT, Bio Research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 전시 품목들로 약 300개 기업, 530부스로 구성되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다.

